

호랑이 강해졌다

KIA '천적' NC와 개막시리즈 1승1패

'호랑이 군단'의 질주가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가 마산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의 개막 시리즈에서 1승 1패를 거뒀다. 3일 예정됐던 경기는 우천취소됐다. 지난 시즌 5승11패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였던 NC와의 경기. 여기에 박석민까지 가세하면서 '우승후보' 0순위로 꼽히던 NC를 상대로 한 값진 1승1패다.



◇시작된 선발 야구

올 시즌 KIA의 최고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선발진이다. 노련해진 양현종이 선발로 복귀한 윤석민으로 좌·우 에이스를 구성한 KIA는 헥터 노에시와 지크 스프루 일이라는 소문난 외국인 선수까지 영입을 했다. 지난 시즌 9승을 기록한 임준혁을 필두로 김운동, 한기주, 홍건희 등 선발 자원까지 풍부하다.

양현종이 개막전 선발로 가장 먼저 선을 보였다. 시범경기에서 감기 몸살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지만 6회까지 버텨내며, 5.2이닝을 소화한 NC 선발 해커에 판정승을 거뒀다. 직구 최고 구속도 147km를 찍는 등 우려했던 스피드도 살아났다. 이날 경기가 4-5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호랑이 사냥꾼'으로 통하는 해커와의 힘겨루기에서 양현종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발야구의 스타트를 잘 끊어줬다.

개막전에서 NC를 당혹하게 하는 경기력을 보여준 KIA는 두 번째 만남에서는 4-3 승리를 거뒀다. 헥터가 한국 무대에서 첫 승을 신고했다. 5회까지는 완벽한 투구였다. 2회 이종욱에게 2루타를 내주는 등 3개의 피안타는 있었지만 최고 151km의 직구와 위력적인 체인지업으로 타이밍을 뺏으면서 NC 타선을 잠재웠다. 6회 1사에서 연속 안타로 위기가 찾아왔다. 나성범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는데 성공했지만 테임즈에게 몸에 맞는 볼을 허용, 만루에 몰렸고 이어 박석민에게 볼넷을 허용 1점을 내줬다. 그러나 헥터는 이호준을 투수 앞

헥터, 막강 NC타선 잠재우며 첫 승

양현종, 해커에 판정승... 선발야구 기대감

이범호·백용환 홈런... 유격수 김주형도 성공적

땅볼로 처리하면서 험난했던 6회를 넘겼다. 헥터는 7회까지 소화한 뒤 4-1의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승리투수 요건을 갖췄다.

◇짜임새와 힘을 더한 타선
최강 타선으로 꼽히는 NC와의 힘겨루기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은 타격이었다. NC의 힘을 대표하는 이호준, 테임즈, 박석민의 한방 공세에 KIA도 홈런으로 응수했다.

백용환이 1일 3회 선두타자로 나와 해커를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며 KIA의 2016 시즌 첫 홈런포의 주인공이 됐다. '캡틴' 이범호도 두 번째 경기만에 홈런포를 가동했다. 이범호는 3-1로 앞선 8회 최강구를 상대로 좌측 중간을 가르는 125m 솔로포를 터트렸다. 이어진 8회말 수비에서 4-3까지 추격을 허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승리를 부른 천금 같은 홈런이었다.

여기에 꾸준함의 대명사로 통하는 브렛 필이 이를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긴 재함을 과시했고, 김기태 감독이 준비해 놓은 '유격수 김주형'이라는 카드도 성공적으로 두 경기를 지켰다. 두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좋은 수비로 유격수 역할에도 충실했다.

개막전에서 잠잠했던 김주찬과 나지완도 2일 마수결이 안타와 함께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타선의 기대감을 높였다.

/마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마운드에서 세포들이 반응하더라”

곽정철, 1792일만의 세이브 '감동 드라마'

“자리 욕심없이 1구 1구 최선 다해 던질 것”



2일 창원시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곽정철이 1점차로 쫓긴 8회말 2사에서 등판 4명의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하며 한점차 승리를 지켜낸 뒤 김주찬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마음을 울린 '곽시인'의 감동 드라마였다.

KIA 투수 곽정철에게는 '곽시인'이라는 별명이 있다. 말 그대로 곽정철은 마운드의 시인이다. 평소 책을 즐겨보는 곽정철은 풍부한 감성과 남다른 어휘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지난 2일에도 곽정철은 시 같은 소감을 읊었다. 이날 곽정철은 4-3으로 앞선 8회 2사에서 심동섭에 이어 마운드에 오르면서 2011년 6월3일 SK와의 원정경기 이후 1765일 만에 1군 무대를 밟았다. 첫 타자 이호준을 좌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운 곽정철은 9회도 삼자범퇴로 막으면 팀의 1점차 승리를 지켰다. 1792일 만의 세이브도 올렸다.

특별했던 순간, 곽정철의 소감도 특별했다. 1점차의 긴박했던 상황에서의 1군 복귀전이라 긴장이 될 만도 했지만 그는 시범경기가 이미 자신의 첫 경기였다고 자부했다.

곽정철은 “시범경기도 나에게겐 진짜 시즌이었다. 본 시즌이라고 생각하면서 경기를 치렀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마운드에 올라서 경기를 했다. 알아서 세포들이 반응한 것 같다”며 침착하게 소감을 밝혔다.

해설 의연하게 세이브 소감을 말했지만 3일 곽정철은 선배들의 놀림을 한몸에 받았다. 시범경기 첫 등판 이후 눈물을 보이면서 이미 선배들에게는 울보 후배가 됐다.

곽정철을 보고 김주찬이 먼저 두 손을 번쩍 들어 “곽정철! 곽정철!”을 연호했다. 나지완과 이범호는 “어제는 안 올랐나?”며 곽정철을 주목했다. 빙그레 웃고 있던 곽정철을 향해 이범호는 한마디를 던졌다. “재 방에서 혼자 조용히 울었을 것 같아.”

선배들의 놀림에도 그저 행복한 곽정철은 “오늘은 밤이 더 맛있었다”며 “투수가 제일 힘든 것은 마운드에 못 올라가는 것이다. 올라가기 위해 정말 많이 참았다”고 말했다.

또 “내 자리가 영원히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리에는 욕심이 없다. 주어진 자리에서 1구1구 최선을 다해 던지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마산=김여울기자 wool@

숫자로 본 KIA 개막 시리즈

1

백용환 팀 시즌 첫 홈런

KIA와 NC의 개막전이 열린 마산구장에서 KIA의 2016 시즌 1호포가 터져 나왔다. 주인공은 포수 백용환이었다. 백용환은 1일 3회초 공격에서 선두타자로 나와 해커를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며 KIA의 2016시즌 첫 홈런포의 주인공이 됐다.

151

헥터 직구 최고 구속

KIA의 시즌 1호 승리투수는 헥터가 됐다. '특급 외국인 선수'로 소문이 자자했던 헥터는 7이닝 6피안타 2사자구 3탈삼진 1실점 '소문난 파칭'을 보여주며 팀에 값진 첫 승을 안겨주었다. 이날 111개의 공을 던진 헥터의 직구 최고 구속은 151km, 68개의 직구를 던진 헥터는 29개의 체인지업도 구사했다.

1300

김주찬 출장 경기

KIA 외야수 김주찬이 1300경기에 출장했다. 김주찬은 2일 NC와의 경기에서 3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하면서 1300번째 경기를 채웠다. 1회부터 2루타를 때려낸 뒤 필의 안타 때 홈으로 들어온 김주찬은 5회에도 안타를 때려내는 등 멀티히트로 자신의 1300경기 출장을 자축했다.

1792

곽정철 2011년 이후 세이브

KIA가 4-3으로 앞서고 있던 2일 9회말, NC 용덕한의 타구가 높게 뒹고 1루수 필이 공을 잡아냈다. 경기가 종료되는 순간이자, 곽정철의 1792일만의 세이브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8회 2사에서 등판했던 곽정철은 탈삼진 하나 포함, 4타자를 범타로 처리하면서 1점 차 승리를 지켜냈다.

/마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지완 도루 깜짝 놀랐다”

덕아웃 T 특특

▲좀 보고 싶어서요 = 지난 1일 개막전, 김기태 감독이 경기 도중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감독은 4-4로 맞선 6회말 2사에서 선발 양현종이 불넷으로 주자를 내보내자 직접 마운드까지 걸음을 했다. 양현종에게 말을 건넰 김 감독은 “(선수들을) 좀 보고 싶어서요”라고 답을 했고, 덕아웃에는 웃음이 터졌다. 진짜 이유는 에이스에 대한 예우였다. 김 감독은 “투구수가 많아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올라갔다. 그런데 본인이 괜찮다고 하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양현종은 “막을 자신이 있었다. 다음 공격 우리팀 타선까지 생각했다. 상위 타순에서 공격이 시작되는데 내가 막아내면 분위기가 올 것 같았다”며 에이스의 책임감을 말했다.

▲비밀입니다 = 영업 비밀이라는 백용환, 포수 백용환은 1일 개막전에서 NC 해커를 상대로 좌월솔로포를 터트리면서 KIA의 마수결이 홈런을 장식했다. 맞는 순간 홈런이었던 잘 맞는 타구였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시원하게 방망이를 휘둘렀던 백용환이지만 홈런 상황에 대한 대답은 시원하지 못했다. 머뭇거리면서 “비밀입니다”를 반복하던 백용환. 나중에 슬그머니 백용환은 “특별한 비결은 없다. 어떻게 하다 보니 맞았는데, 어쩌다가 홈런을 쳤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다. 그냥 노리고 있었던 걸로 하겠다”고 웃었다.

▲깜짝 놀랐다 = 3일 나지완의 인사를 받은 김기태 감독은 “깜짝 놀랐다”는 말

로 답을 했다. 김 감독을 깜짝놀라게 한 나지완. 그는 전날 경기에서 깜짝 도루를 선보였다. 4회 2사에서 시즌 첫 안타를 때린 나지완은 이어 2루 베이스를 훔쳤다. 상대 배터리에는 물론 벤치까지 깜짝 놀라게 한 나지완의 도루였다. 비록 후속타 불발로 홈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과감한 플레이를 강조하는 김 감독에게는 만족스러운 공격이었다. 그리고 나지완의 이 도루는 2016시즌 KIA의 첫 도루로 기록됐다.

▲2군 카스트로네 = 3일 취재진에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던 곽정철.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곽정철은 “2군에 있는 후배들에게 축하 문자가 많이 왔다”고 대답을 했다. 조용히 인터뷰를 지켜보고 있던 이범호가 “2군 카스트로네”라고 농담을 하면서 진지한 인터뷰 현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고민입니다 = 3일 NC와의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김기태 감독이 선발로테이션 고민에 빠졌다. KIA는 3일 윤석민을 선발로 내세울 예정이었다. 윤석민을 홈 개막전이 아닌 3일 경기에 내정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선발로 복귀하는 시즌, 아직 많은 이닝이 부담스러운 만큼 화·일요일 두 차례 등판을 해야 하는 5일 경기 대신 3일로 첫 등판을 잡아둔 것이다. 그러나 비라는 변수 탓에 김 감독은 예정됐던 선발 순서를 바꾸느냐 마느냐의 고민에 빠졌다. 한편 선발 지크의 불펜 기용에도 이유가 있었다. 난적 NC를 잡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1일 불펜 피칭이 잡혀있었던 지크. 경우에 따라서는 불펜이라는 초강수 카드도 투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이날 경기의 박빙의 승부로 전개되면서 지크가 불펜에서 첫 선을 보였다.

/마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